

代理的 攻撃의 效果에 관한 한 研究

尹 鎬 允 · 鄭 良 殷

서울대학교 心理學科

攻撃場面に 노출된 후 후속공격이 증가한다는 社會的學習理論과 이와 反對로 攻撃행동이 減少된다는 傳統的 혹은 修正된 憎惡解消理論을 再評價分析하기 위하여 中立的映畫와 攻撃的映畫 등 2종의 자극 모델을 통해 81명의 서울대 학생에게 攻撃性을 측정했다. 특히 情緒誘發水準의 差異에 따른 攻撃量의 變化樣相을 관찰하고 攻撃性測定指標로서 이미 인정된 電氣자극강도와 相關지위 전기자극의 持續時間이 攻撃性的 指標로서의 可能性도 아울러 검토하였다. 그 결과 攻撃映畫를 본 피험자는 情報誘發水準에 관계없이 모두 中立映畫를 본 피험자보다 攻撃量이 많았으며, 情緒誘發水準이 높아질수록 攻撃量의 증가를 보였으며, 攻撃測定指標로서의 전기 자극 持續時間은 아직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暴力映畫가 社會的暴力行爲를 助長한다는 Bandura와 Walters의 주장은 지지받는 반면 攻撃映畫를 본 후 攻撃行動減少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Feshbach 등의 憎惡解消理論은 支持받지 못했다.

攻撃行動을 한 후에 나타날 效果에 대해 크게 두가지의 相反된 理論이 있어 왔다. 하나는 Feshbach, S.와 Berkowitz, L.을 中心으로 한 憎惡解消理論이며 다른 하나는 Bandura, A.와 Walters, R.H.를 중심으로 한 社會的 學習理論이다.

원래 「解消(catharsis)」란 用語는 「情緒 表現에 따른 緊張減少」를 의미하는 것으로서(Freud & Breuer 1948), 이를 攻撃行動에 적용하면 「攻撃行動을 한 후 攻撃에 대한 衝動性的 強도가 減少하는 것」을 말한다(Feshbach, 1964). 이때 「解消」란 攻撃의 單純한 「表現」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Feshbach, 1955; Singer & Rowe, 1962)과 表現에서 한발짝 나아가 他人에게 어떤 傷處를 입히는 身體的·物理的 攻撃이 있어야만 解消가 일어난다는 주장(Berkowitz, Green & Maccouley, 1962; Hokanson & Burgess, 1962;)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특히 Berkowitz는 解消란 完結傾向의 아이디어(idea of completion tendency)라고 생각하여 學習에 있어 未完成된 일이 完成된 것보다 더 잘 記憶된다는 Zeigarnik 效果나 혹은 Osviankina 效果등을 예로 들었다. 즉 “完成되어야 할 行動이 자극만 되고 完全히 달성되지 못하면 情緒의 흥분은 증가된다”는 Scheffield(19

61)의 假說을 공격행동에 적용하더라도, 일단 有機體가 攻撃하도록 충동받으면 그 對象에게 傷害를 주지 못하는 한 完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Berkowitz 1962). 이러한 方法의 解消는 直接的 攻撃(Hokanson과 Shelter, 1961), 間接的 攻撃(Rosenbaum와 de Charms, 1960), 意思疎通(Thibaut와 Coules, 1952), 象徵的 加害(Hokanson & Burgess 1962)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立證되었으며 「自己攻撃」도 緊張을 해소시킬 것이라는 Skinner(1953)의 假說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Stone & Hokanson, 1969).

한편, 攻撃行動의 效果에 관한 社會的 學習理論을 주장한 Bandura와 Walters(1963)는 暴力映畫가 社會的 暴力를 助長한다는 실험결과에서 출발하였으며, Klapper(1960), Lovaas(1961), 등 많은 학자들도 일치된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그들은 暴力를 助長하는 이유로 模倣을 통한 學習(imitative learning)과 禁止解除效果(disinhibitory effect) 등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일단 남의 暴力行爲를 模倣하면 특정한 행동에 대한 禁止가 解除되고 攻撃反應에 대한 強化와 攻撃不安(aggression-anxiety)의 減少가 일어난다고 攻撃反應을

유발시키는 攻擊자극의 本質 때문에 他人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피험자가 모델의 反應을 관찰한 결과 強化를 받게 되며(Bandura, 1965; Bandura & Walters, 1963) 그 피험자는 (1) 自己自身の 行動系列에 없는 새로운 位相反應(topographical novel response)을 얻게 되고 (2) 禁止反應의 強度를 변화시키므로써 現存하는 행동에 증가나 減少를 가져오며 (3) 刺戟高揚이나 模範端緒(modeling cue)의 辨別 機能을 통하여 이전에 학습한 禁止되지 않은 行動을 증가시킨다. 他人의 行動模倣이 전혀 새로운 反應양식을 획득케 하고 그 반응이 사회적으로 轉移된다(Bandura *et al.*, 1961)는 주장은, 아동에게서 보기 힘든 言語的 혹은 身體的 攻擊을 보여주면, 아동에게는 보기 힘든 새로운 攻擊行動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Schramm, Lyle & Parker, 1961; Hicks, 1965), 그런데 전통적인 憎惡解消理論은, 攻擊의인 모델자극은 특정한 조건에서만 해소를 일으키며, 즉 攻擊場面에 노출될 당시 觀察者의 情緒가 유발되어 있어야만 攻擊減少가 일어나고 유발되지 않은 피험자는 오히려 증가된다고 修正되었는데 (Buss, 1961; Feshbach, 1961; 1964) 이 때 모델자극의 機能의 性質은 觀察者의 暫定的 情緒狀態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이미 假定했던 것이다.

그러나 Bandura 등 (1961)과 Hartmann(1969) 등은 정서유발상태에서 攻擊映畫를 본 피험자들이 解消가 아니라 攻擊增加를 나타낸 실험결과를 제시하므로써 社會的 學習理論을 옹호하였다. 이때 공격영화 내용은 攻擊의 장면과 被擊의 장면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서 유발상태 속에서의 攻擊形態決定에 있어 標의人物(target person)과 模範端緒(modeling cue)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非情緒 유발집단에서는 攻擊性的 증가는 觀察하지 못했다.

Berkowitz(1964)는 攻擊모델의 效果는 觀察者의 內的誘發水準과 標의對象의 性質(品性論에서 말하는 放出者와 비슷한), 이 兩者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즉 유발수준이 낮으면 강한 放出者가 필요하고 유발수준이 높으면 放出者는 약해도 攻擊은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이 外部的 자극단서는

代理的 攻擊場面에서의 攻擊유발에 매우 중요하다(Berkowitz, 1965).

그런데 情緒誘發水準이 증가함에 따라 攻擊行動이 증가함은 Dollard 등(1939)의 基本理論 이후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 또 憎惡의 원인이 되는 對象은 中立的 經驗과 연관된 대상보다 攻擊誘發可能性이 높을 것이다. 그러면 攻擊誘發端緒로서의 代理的 攻擊映畫가 一定할 때 피험자의 情緒誘發水準이 증가함에 따라 攻擊量이 增加할 것이다.

그러나 攻擊映畫에 노출된 피험자가 中립映畫에 노출된 피험자보다 單語聯想檢査나 質問紙法을 통한 攻擊量이 더 작았던 Feshbach(1961)의 연구가 解消理論의 代表的인 例로써 항상 인용되지만 이 實驗은 再評價되어야 하고, 특히 그가 사용한 中립映畫가 진정한 中立的의 아니었거나, 그의 攻擊性測定方法 또한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험자가 社會的 價値反應(social desirability)에 따라 반응할 위험이 크다는 비판이 있다(Bandura & Walters, 1963).

또 攻擊映畫에 노출된 후의 攻擊減少는 순수한 추동감소나 에너지 發散의 결과라기보다 攻擊行動의 表現과 그것이 주는 傷害때문에 感情移入의 禁止過程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Berkowitz, 1962; Berkowitz & Rawlings, 1963).

여기서 또 하나 제기되는 問題는 攻擊性測定指標(index)다. 單語聯想檢査(Feshbach, 1964), 憎惡檢査質問紙(Buss & Durkee, 1957), TAT 등 投射法(Weatherley, 1962), 情操評定(Nowlis, 1965), 소시오메트리(Eron *et al.*, 1963) 血壓·脈搏 등 生理的 變化(Hokanson & Shelter, 1961) 등이 공격성의 지표로 사용되어온 이외, 최근 피험자 개인이 얼마나 攻擊을 발산했는지를 自身이 알 수 있는 電氣쇼크 強度를 많이 채택했다(Bandura 1965; Berkowitz, 1962; Hartmann, 1969). 그런데 전기 자극의 강도를 지표로 취할 수 있다면, 전기자극의 持續時間도 攻擊性的의 指標로 채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攻擊의 端緒가 있는 攻擊映畫를 모델자극으로 사용하고, 攻擊行動誘發의 必須前提가 되는 內的 攻擊準備性(readiness to aggression. Berkowitz, 1962)을 갖추기 위해 피험자의 情緒誘

發水準을 操作하므로써 本研究은 代理的攻擊의 效果에 關係 다음 몇가지 點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代理的攻擊의 效果에 關係 두가지 相反된 理論들(憎惡解消理論과 社會的 學習理論)을 再檢證하며

둘째, 피험자의 情緒誘發水準에 따른 攻擊行動量의 變化와 差異를 관찰하며,

셋째, 아울러 攻擊性測定指標로서 이미 認定된 전기자극의 「強度」와 「持續時間」과의 相關을 고찰하므로써, 「전기자극 지속시간」의 攻擊性指標로서의 妥當性을 알아보려 한다.

方 法

실험조건 및 피험자. 실험집단은 두가지 映畫(공격영화·중립영화)와 세가지 情緒誘發水準(非情緒誘發, 약한 情緒誘發, 강한 情緒誘發)에 따라 구성하였다. 또한 피험자는 서울대 문리대 남학생 81명이었으며, 본실험은 1970년 10월 10일부터 11월 5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실험자료. 사용된 영화는 모두 16mm 토기 필름으로써 中立的 映畫는 「가나안農場」(구립영화제작소 제작 20분짜리 문화영화)의 첫 2分間을 택했으며 그 속에는 전원경경·교회·농사일 장면 등이 수록되어 있다.

攻擊영화는 김기국 선수의 권투시합장면(2분)과 극영화 「돌아온 황구의 사나이」(1970)에서 발췌한 被擊장면(4분)으로 구성하였다.

정서유발적전에 사용한 問題는 흔히 同調行動實驗에 사용되어온 線分比較 6개 言語比喩 4개였다. 한편 일반적대도에 關係 問題는 金明順(1970)의 自我受容尺度에서 10개의 문항을 선택했다.

정서유발을 위하여 사용한 印象評價文은 실험자가 3가지로 작성하였다. 이것은 “線·言語比喩문제”를 통해본 知能의 나쁘다는 자신과 “態度문제”의 반응을 보니 너무나 僞善的이란 點을 강조하여 「弱한 非難」과 「強한 非難」의 두가지 5~8줄 정도 길이 의 印象평가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비유발집단은 관찰하는 評價文을 주었다.

피험자가 印象評價文에 의해 유발된 情緒의 量

을 측정하기 위해 印象評價質問書를 만들었다. 이 질문서는 張東煥(1965)의 연구에서 評價의 要因인 “착하다—악하다” “더럽다—깨끗하다” “순진하다—불순하다” “나쁘다—좋다” “옳다—그르다”의 5가지 次元을 선택하여 7점척도를 구성했다.

실험장치. 모든 문제에 대한 回答은 鄭良殷(1969)의 연구에서 사용한 Crutchfield 양식의 同調 행동 實驗장치를 통하여 하게 했다. 칸막이로 分離된 5칸 중 가운데 칸을 비워놓고 4칸에 자유로이 피험자가 앉게 하고 서로 옆칸을 넘겨다 볼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각 칸마다 5개의 신호용 전구와 5개의 신호용 단추가 나란히 두줄로 설치되어 있다. 이 전구와 단추는 실제로는 옆방에 있는 操作者의 卓子에 붙은 操作스위치와 연결되어 있고 5개칸 사이의 전선연결은 없다. 각 문항은 실험 환등기를 통해 칸막이 탁자의 前面 面에 投射 되었다.

操作者의 實驗卓子 위에는 피험자들의 反應을 보고 받을 수 있는 信號用電球의 記錄板과 피험자가 앉아 있는 5개의 칸과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가 장치되어 있다. 이 스위치는 5명 중 특정한 피험자 몇명에게만 信號가 가지 않고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信號가 가도록 變更시킬 수 있게 꾸며졌다.

한편 실험의 세 3부에서 사용한 攻擊裝置는 Buss(1964)의 攻擊기계(aggression machine)를 그대로 번안, 제작했다. 이 장치는 각 칸마다 11개의 판대용 전기 단추를 가설하고 전기자극을 느낄 수 있는 환개의 코일板을 마련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同調行動實驗裝置의 5개칸에 알맞게 附着시켰다.

그리하여 주어진 문제에 대해 同調 행동실험장치의 信號燈에 나타난 상대방의 解答을 보고 그것이 正답이면 0번 판대용단추를, 誤답이면 1번부터 10번까지의 빨간 단추중의 하나를 누르게 하였다. 한편 이 裝置와 연결된 信號用電球記錄板과 Kymograph가 操作者의 卓子 위에 마련되어 있어 판대자가 누른 단추의 번호와 持續時間이 동시에 기록된다.

전기자극이 실제로 간다는 體驗을 시킬 때는 助手가 옆방에서 10번 단추일 때는 700V, 5번 단추

일 때는 350V의 전기자극을 눌러 주었고 단추가 번호가 높아질수록 전기의 강하다고 지시해 준다. (그러나 電流는 거의 零이며 피험자에게 실제로 큰 피해는 없다.)

절차. 4명의 피험자가 실험장치의 가운데 칸을 제외한 4개의 칸을 마음대로 앉게 했다. 이들은 제비를 뽑아 왼편부터 A, B, A, B 순으로 앉도록 하고 들쭉組를 짜게 하였다. 各者는 自己番號만 알고 나머지 3명의 번호는 알지 못하게 되고 A의 相對方은 C, B의 相對方은 D라고 지시를 주나 C, D는 사실상 없다.

지시문은 실험자가 읽어주었는데, 제 1부에서는 피험자 A와 B가 대답하면 C와 D가 감독하고, 제 2부에서는 6분간의 영화를 보며 제 3부에서는 반대로 C와 D가 문제에 대답하면 A와 B가 그의 해답이 맞았는지를 감독하게 된다고 지시했다. (이 때 C와 D의 대답은 모두 實驗助手가 操作했다.)

제 1부에서는 각각 5개의 선택지를 線分比較(6문제), 言語比喩(4문제) 態度(10문제) 등 20문제를 각 5초씩 실험환등기로 제시했고 이때 線分과 言語비유 문제는 각각 2개씩 誤答를 눌러 주었고 態度問題는 中間이하의 나쁜 方向으로 操作對答했다.

제 1부가 모두 끝나면 相對方의 印象을 評價하는 글을 2분간 쓰도록 하는데 그들이 쓴 評價文은 걷어돌이고, 情緒를 誘發시키기 위하여 實驗者가 사전에 만든 批判的인 評價文을 마치 自己相對方이 쓴 것처럼 꾸며 피험자들에게 나누어준다. 이때 준 印象評價文은 態度問題 10번 “때때로 모르는 일에도 아는 척하는 것”에 대해 대답한 結果를 보고 거기에 相應하는 評價文을 나누어 주었다.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좋은 방향을 향해 5번을 누른 사람에게는 “지나친 僞善”이란 내용의 批判을, “있을 수 있지만 피해야 한다”와 같이 온건하게 3번을 누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태도가 흐리멍텅하다”는 내용이 評價文을 주었다. 그리고 非情緒誘發集團에게는 “전체적으로 지능이 우수하면 印象이 좋다”는 평가문을 주었다.

이러한 평가문을 나 읽고 나면 제 2부에서 곧 영화를 보여 주는데 이는 주의력이 얼마나 깊은

가를 보려는 것이므로 잘 보아야 하며 끝나면 그 영화내용을 질문하겠다고 지시하여 주의를 환기시켰다.

중립영화집단은 문화영화「가나안농장」의 첫부분(6분간)을, 공격영화집단은 권투와 극영화의 결투장면 등(6분간)을 보여 주었다.

영화가 끝나면 즉시 전기코일을 피험자들의 왼손등에 부착시키고 그위에 장갑 한 짝씩을 꼭 끼워준다. 그후 3부에서도 선과 언어비유문제 18개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해답을 보고 맞았는지를 판단하여 11개의 공격장치의 단추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기자극을 주도도록 했다.

18개 문제 중 선의 비교 6개 언어비유 2개에 오답을 주었다. 이 단추의 번호가 높아 갈수록 전기강도가 강해진다고 지시했다. (연습을 통해 전기자극이 실제로 왼손에 오는 것을 체험케 했다.) 3부가 모두 끝나면 상대방평정 질문서를 평정시키고 영화내용에 관한 소견을 쓰게 하고 약 40분간에 걸친 실험을 모두 끝냈다.

그리고 나서 피험자 4명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간단히 설명했다. 그리하여 상대방의 비호의적 평가문은 사실상 실험자가 작성한 것이며 피험자 개개인에게는 지능이 부족하거나 위선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말하고 특히 피험자 상호간에 오해나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감정을 해소시키고 난 후 돌려 보냈다.

結 果

본 실험의 결과는 크게 다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情緒誘發의 效果. 情緒誘發된 피험자가 유발되지 않은 피험자보다 相對方을 덜 好意的으로 評價하더라는 假定아래, 情緒誘發의 量은 모든

표 1. 인상평가 점수표

통계치	Total	N	M
유발조건			
비정서유발집단전체	630	27	23.33
약한 정서유발집단전체	510	26	19.61
심한 정서유발집단전체	499	28	17.82

실험이 끝난후 자기相對方에 대한 印象評定에서 얻어졌다. 각 집단간의 정서유발정도는 [표 1]과 같다. 이 점수는 5개의 評價的 形容詞의 意味微分法上의 점수를 總合하여 그 個人의 全體情緒誘發量으로 잡았다. 그 결과 3 유발수준에서 모두 有意味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F=12.44, p<.01$).

2. 攻擊量測定(전기자극의 강도). 전기자극의 強度는 실험의 제 3부에서 18문제에 대해 相對方이 誤答을 했을 때 누른 단추의 番號(1-10번)를 總合한 點數를 한 피험자의 攻擊量으로 간주했는데 이의 平均은 [표 2]와 같다.

표 2. 전기자극강도의 집단별 평균표

조 건		통 계 치	
		N	M
영 화 및 유 발 수 준 별	공 격 영 화	비정서유발집단	13 12.57
		약한 정서유발집단	16 13.07
		심한 정서유발집단	18 13.72
	중 립 영 화	비정서유발집단	14 11.27
		약한 정서유발집단	10 11.91
		강한 정서유발집단	10 13.10
유 발 수 준 별 영 화 화	비정서 非情緒유발 집단전체	27 11.52	
		약한 정서유발집단전체	26 12.62
		강한 정서유발집단전체	28 14.21
	공격영화집단전체	47 13.12	
		중립영화집단전체	34 12.14

(註) $\sqrt{x} + \sqrt{x+1}$ 의 방식에 의해 轉尺한 결과임.

본 실험결과, 정서유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攻擊映畫集團이 中立映畫集團보다 攻擊量이 많았다. 그러나 有意味한 差異가 없었기 때문에, 代理的 攻擊에 있어 社會的 學習過程이 完全히 지배한다고 斷定할 수는 없으나, 憎惡解消의 心理的 過程이 지배한다는 事實만은 否認하고 있다. 攻擊映畫集團은 어느 정서유발조건에서도 中立映畫를 본 集團보다 攻擊量의 減少를 보이지 않았다(映畫間 $F=2.71, p>.05$).

정서유발수준에 따른 3 집단 간에는 意義있는 差異를 보이고 있는데($F=3.93, p<.05$) 攻擊量은 挫折의 크기에 비례하여 커진다는 주장이 立證되었다.

그리고 映畫와 情緒誘發集團間의 相互作用은

意味없는 差異를 보였다.

3. 전기자극強度와 持續時間간의 相關關係. 피험자의 反應持續時間이 攻擊性的 指標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Hartmann(1969)의 示唆에 따라, Kymograph에 나타난 持續時間의 길이를 mm 단위로 總合하여 한 개인의 總攻擊量으로 한 測定値는 [표 3]과 같다.

〈표 3〉 전기자극지속시간 통계표

조 건		통 계 치	
		N	M
공 격 영 화	비정서유발집단	13	23.9
	약한 정서유발집단	16	21.6
	심한 정서유발집단	18	21.9
중 립 영 화	비정서유발집단	14	21.3
	약한 정서유발집단	10	21.9
	심한 정서유발집단	10	24.5

(註) $\sqrt{x} + \sqrt{x+1}$ 방식에 의해 轉尺한 결과임.

이 測定値를 기초로 하여 전기자극의 強度와의 相關關係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즉 6個集團 각각 Spearman의 ρ 가 -.318에서 .59에 이르기까지 多樣하다. 따라서 과연 持續時間이 強度와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있는 攻擊性的 指標나 하는데는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

표 4. 강도와 지속시간간의 相關

실험 조건	Spearman의 ρ
비정서유발—공격영화	0.59
비정서유발—중립영화	0.14
약한 정서유발—공격영화	0.11
약한 정서유발—중립영화	-0.236
심한 정서유발—공격영화	0.383
심한 정서유발—중립영화	-0.318

論 議

대리적 공격이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답은 이 연구에서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電氣 자극강도를 攻擊性的 尺度로 간주할 때, 情緒誘發水準이 증가할수록 攻擊性이 높아졌다. 특히 3가지 情緒誘發水準집단 모두가 똑같이 中立映畫를 보았을 때보다 攻擊映畫를 보았을 때가 일률적인 攻擊의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Dollard 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1939) 이후 전통적 解消理論이나 Buss 나 Feshbach 의 修正理論에 상당한 疑問을 던져주고 있다. 그들의 理論에 따르면 攻擊모델에 노출되면 情緒誘發된 피험자는 攻擊量이 減少해야 마땅하며, 中立映畫를 본 피험자가 攻擊映畫를 본 사람보다 攻擊量이 많으리라 想定할 수 있다.

그러나 本研究은 이러한 理論을 支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록 意義있는 수준의 差異는 아니라 하더라도 전혀 反對되는 方向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情緒誘發事態에서도 攻擊映畫에 노출된 피험자가 中立映畫를 본 사람보다 攻擊量이 많았다. 본 연구의 模倣 자극(modeling stimuli)이 攻擊性を 昇進시킨다는 결과는 少年犯을 대상으로 한 研究(Hartmann, 1969)와 正常人을 對象으로 한 여러 研究結果(Bandura *et al.*, 1961; Berkowitz, 1964; Walters & Thomas, 1963)와 同一한 方向으로 暗示해주고 있다.

한편 Hartmann 은 非情緒誘發집단에서 攻擊映畫를 본후 攻擊의 增加가 없었던 것은 暴力映畫속에 나온 被害者의 苦痛反應이 觀察者들에게 感情移入的 禁止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本研究結果는 情緒誘發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攻擊映畫를 보면 오히려 攻擊성이 증가했다. 그러므로 非情緒誘發狀態에서도 處罰이 없는 狀況 아래서는 強化의 作用을 통해 社會的 學習過程이 명확히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犯罪少年을 對象으로 한 Hartmann(1969)은 攻擊反應系列을 일반적으로 道具的 攻擊反應(instrumental aggressive response)과 被擊者가 나타내는 苦痛의 端緒(pain cue)로 구분했다. 왜냐하면 苦痛의 端緒없이 道具的 攻擊을 兒童에게 보여주면 人形과 같은 無生物標의에 대한 攻擊이 증가했고(Bandura *et al.*, 1961), 表現的 苦痛反應(expressive pain reaction)의 效果는 두가지로 相反된 可能性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兒童實驗에서 挫折의 要因을 除去하면 그것은 二次的 強化의 性質을 갖게 되므로(Sears *et al.*, 1957) 苦痛의 단서도 二次的 強化의 要因이 될 수 있다는 主張과 다른 한편 자극일반화원칙에 따라 苦痛反應이 觀察者에게 條件화된 情緒反應(conditioned

emotional response)을 유발시켜 오히려 攻擊禁止의 作用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Hartmann 은 자기의 연구가 苦痛의 端緒를 준 映畫에서 더 많은 攻擊量을 보인 것은 역시 挫折의 除去가 二次的 強化者의 役割을 다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感情移入的 禁止의 源泉으로서 苦痛의 端緒가 作用할 수 있다는 주장이 弱化되지 않는 限, 攻擊모델에 관한 解消 혹은 社會的 學習理論의 研究는 攻擊內容을 「道具的 攻擊」과 「苦痛端緒」라는 두가지 측면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實驗해야 할 것이다. 물론 本研究에서도 원래 이점을 밝히기 위해 몇가지 變因을 設定하여 實驗하였으나 實驗方法의 未備과 困難으로 이 兩者를 구별하여 資料를 얻는데 失敗했고 더 적절한 測定方法을 개발하여 앞으로 또 다른 實驗을 하고자 한다.

攻擊性測定指標에 관한 문제. 여태까지의 攻擊性研究에 많은 指標가 사용되었으나 모두들 그 長短點을 지니고 있다.

Gellerman(1956)의 言語聯想檢査나 Buss(1961)의 文章敘述形式은 直接的 攻擊目標가 없다는 점이 큰 缺點이다. Gellerman 은 5개의 공격성에 관계된 單語(殺人·強度 등)와 5개의 中立的 單語를 차례로 제시하고, 각 單語에 대해 聯想되는 단어 10 개씩을 順序대로 배열케 하여 이 5개의 攻擊單語에 대해 나타난 「攻擊的 單語」의 總合을 그의 攻擊點數로 잡았다. 그러므로 이 指標는 「潛在的 攻擊」이나 「攻擊傾向性」을 측정할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問題는 投射法的 測定指標에서도 생기는데 TAT, Rorschach 검사 및 그림좌절검사(Rosenzweig P-F Test) 등도 「潛在的 攻擊性」을 측정할 뿐 아니라 採點上의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된다.

또 質問紙上에 相對方을 評定시키거나 自身의 情操(mood)를 表現시키며(Nowlis, 1965) 集團構成員들끼리 서로 評價하는 소시오메트리(sociometry)가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가장 信憑性있는 것은 역시 生理的變化를 통한 指標와 電氣 쇼크 強度의 測定이다. 前者는 Hokanson과 Shelter (1965)등

많은 연구자들이 血壓·脈搏·呼吸率 등을 情緒變化의 指標로 삼은 바 있고, 電氣쇼크 強度의 測定은 Buss 型으로써 Bandura, Berkowitz, Hartmann 등이 채택하고 있다. 이 尺度는 被試者 個人이 얼마나 攻擊을 발산했는가를 自身이 評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適合한 尺度라고 Kaufmann(1965)은 지적하고 있다.

本 研究에서도 Hartmann(1969)의 暗示에 따라 強度뿐 아니라 持續時間도 攻擊性의 指標로 사용하려했으나 이 兩者의 相關이 負的相關까지 나왔으며, 지속시간은 被試者가 어느 정도 오래 눌렀는지를 認知的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애매한 指標이 되는 것 같다.

한편 強度나 持續時間뿐 아니라 전기단추를 얼마나 세게 누르느냐 하는 누르는 강도(pressing strength)를 指標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된다. 왜냐하면 「忿怒가 強할수록 더 세게 단추를 누를 것」이라고 假定할 수 있기 때문이다. 其他 이러한 實驗에서 야기되는 問題들. 實驗資料로서 어떠한 暴力場面(映畫 등)을 어떤 刺激으로 채택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映畫의 演技者를 被試者들이 알아볼 수 없는 無名人으로 하여, 演技者에 대한 先入見이 攻擊의 本質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中立的 映畫의 性質이 문제되는데 Feshbach(1961)가 사용한 「市場內에서 流言蜚語가 퍼지는 場面」은 엄밀한 의미에서 中立的이 아니라도 批判받았던 것과 같이 本실험에 사용한 「가나안 農場」도 農村運動에 헌신하는 篤信한 基督教徒를 주인공으로 취급하므로써 感情抑制作用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또, 映畫의 效果가 攻擊행동 때문인지, 被擊 받는 者의 苦痛 때문인지를 분명히 가리기 위해서는, 「攻擊場面」과 「被擊場面」을 辨別하여 전혀 별개의 映畫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代理的 攻擊의 노출시간을 통제해야 할 것인바, 5분짜리 필름을 사용한 Hartmann의 실험결과 는 憎惡解消가 일어날 충분한 時間的 餘裕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筆者는 6분간의 필름을 사용했으나 별다른 結果를 얻지 못했으며, Feshbach(1961)는 10분, Berkowitz(1963)는 7분 짜리 映畫를 사용했다. 분명히 代理的 攻擊에 의

露出時間은 攻擊性效果의 한 變因이 될 수 있다.

情緒誘發方法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그림을 그리게 한 후 잘못 그렸다고 被試者를 질책하는 방법과 1,000에서 900까지 3씩 걸러 꺼꾸로 빨리 세어 보도록 하고 나서 세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연구자료가 못쓰게 되었다고 비난하거나 (Feshbach 1961), 知能檢査나 社會判斷檢査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해 詰責하므로써 좌절시키는 방법도 있다(Hartmann 1969). 筆者는 과거 수차에 걸친 同調行動實驗에서 被試者가 계속하여 誤答에 압력을 받으면 상당한 疑惑과 忿怒狀態에 빠진다는 사실을 체험했다. 따라서 이 同調實驗方法을 그대로 本研究에 적용하여 “知能이나 나쁘다”고 질책하는 식의 誘發方法을 쓰는 한편, 情緒를 더욱 效果의으로 유발시키기 위해 自我判斷 尺度를 사용하여 被試者의 自我의 일면을 건드린 결과 세 集團間 情緒誘發效果의 差異는 분명했다.

참 고 문 헌

- 金明順. 自我受容과 防禦行動.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69
- 張東煥. 韓國語의 意味論의 構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논문집, 제 9집, 1965
- 鄭良殷. 課題困難度와 集團壓力. 한국심리학회지, 1969. 제 1권 2호, p. 42-53
- Bandura, A. Influence of model's reinforcement contingencies on the acquisition of imitative responses. *J. per. soc. Psychol.*, 1965, 1, 589-595
- Bandura, A., & Walters, R.H. *Social learning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ton, 1963
- Berkowitz, L. *Aggression: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New York: McGraw-Hill, 1962
- Berkowitz, L. Aggressive cues in aggressive behavior and hostility catharsis. *Psychol. Rev.*, 1964, 71, 104-122
- Berkowitz, L. Some aspects of observed aggression. *J. per. soc. Psychol.*, 1965, 2, 3, 359-369.
- Berkowitz, L., Green, J.A. & Maccauley, J.R. Hostility catharsis as the reduction of emoti-

- onal tension, *Psychiatry* 1962, 25, 23-31
- Berkowitz, L., & Rawlings, E. Effects of film violence on inhibitions against subsequent aggression. *J. ab. soc. Psychol.*, 1963, 66, 405-412.
- Buss, A. *The psychology of aggression*. New York: Wiley, 1961.
- Buss, A., & Durkee, A.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 consult. Psychol.*, 1957, 21, 4, 343-349.
- Dollard, J., Doob, L.W., Miller, N.E., Mowrer, O.H. & Sears, R.P.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aven: Yale Univ. Press, 1939
- Eron, L.D., Walder, L.O., Toigo, R., & Lefkowitz, M.M. Social class, parental punishment for aggression, and child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1963, 34, 849-867
- Feshbach, S. The drive-reducing function of fantasy behavior. *J. ab. soc. Psychol.*, 1955, 50, 3-11
- Feshbach, S. The stimulating versus cathartic effect of a vicarious aggressive activity, *J. ab. soc. Psychol.*, 1961, 63, 381-385.
- Feshbach, S. The function of aggression and the regulation of aggressive drive. *Psychol. Rev.*, 1964, 71, 237-277
- Freud, S. & Breuer J., On physical mechanisms of hysterical phenomena. In S. Freud, *Collected Papers*, V. 1 London: Hogarth Press, 1918, p.24-41
- Gellerman, S. The effects of experimentally induced aggression and inhibition on word-association response sequenc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 Pennsylvania. 1956,
- Hartmann, D.P. Influences of symbolically modelled instrumental aggression and pain cues on aggressive behavior. *J. per. soc. Psychol.*, 1969, 11, 3, 280-288
- Hicks, D.H. Imitation and retention of film-mediated aggressive peer and adults model. *J. per. soc. Psychol.*, 1965, 2, 97-100.
- Hokanson, J.E. & Burgess, M. The effect of three types of aggression on vasculax processes. *J. ab. soc. Psychol.*, 1962, 64, 446-449.
- Hokanson, J. E., & Shelter, S. The effect of overt aggression on physiological arousal. *J. ab. soc. Psychol.*, 1961, 63, 44-448
- Kaufmann, H. Definitions and methodology in the study of aggression. *Psychol. Bull.*, 1965, 9, 351-364
- Klapper, J.T. *The effect of mass communication*, New York: Free Press, 1960.
- Lövaas, O.I. Effect of exposure to symbolic aggression on agger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1961, 32, 37-44
- Nowlis, V. Research witg the mood adjective check list. In Tompkins, s.S. & Izaed, C.(ed.) *Affect, cogniton. and personality*, New York: Springer, 1965
- Rosenbaum, M.E. & deCharms, R.C. Direct and vicarious reduction of hostility. *J.ab. soc. Psychol.*, 1960, 60, 105-111
- Scheffield, F.D. & Maccoby, N. Summary and interpretation on research on organizational principles constructing filmed demonstrations. In Lumsdaine A.A.(Ed.) *Student response in Programmed instruction: A Symposium*. Washington D.C.: Natl, Acad, Sci,-Natl, Res. council p.117-131. 1961.
- Schramm, W., Lyle, J., & Parker, E.B. *Television in the lives of our children*. Standard: Stanford Univ. Press, 1961
- Sears R.R. Maccoby, E.E. & Levin, H. *Patterns of child rearing* NewYork: Harper, 1957.
- Singer, J.L. & Rowe, R. An experimental study of some relationships between daydreaming and anxiety. *J. consult. Psychol.*, 1962, 26, 446-454
- Skinner, B.F. *Science and human behavior*, New York: Macmillan, 1953
- Stone, L. Hokanson J.E. arousal reduction via self-punitive behavior, *J. pers, soc, Psychol.*, 1969, 12, 72-79

Thibaut, J. & Coules, J. The role of communication in the reaction of interpersonal hostility. *J. ab. soc. Psychol.*, 1952, 47, 770-777

Walters, R.H. & Thomas, E.L. Enhancement of punitiveness by visual and audiovisual dis-

plays. *Canadian J. Psychol.*, 1963, 17, 244-255.

Weatherley, D. Maternal permissiveness toward aggression and subsequent fantasy aggression. *J. ab. soc. Psychol.*, 1962, 65, 1, 1-5

AN EXPERIMENT ON THE EFFECT OF VICARIOUS AGGRESSION

YOON HO YOON and YANG EUN CHUNG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experiment aimed at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vicarious aggression through aggressive film, and also at finding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s and the level of emotional arousal. It was designed by 2×3 factorial design. Eighty-one SNU students were initially subjected to non-arousing(control), mild-arousing and severe-arousing experiences. Then they viewed a nonaggressive film(a farmland sceneryetc. 6 min.)and an aggressive film(boxing, 2 min. and fighting film, 4 min.). The dependent measures were the intensity andduration of electric shocks that the subjects ostensibly administered to their provocateurs(partners) whenever their partners made errors on an assigned answering task.

The results revealed as follows: (1) Regardless of arousal level, Ss who observed the

modeled aggression behaved more punitively than did Ss who had witnessed the non aggressive film. (2) The more aroused the Ss the more punitively they behaved. So we can say the level of aggression is dependent of the level of emotional arousal. (3) Generally, aroused Ss responded more punitively than ded non-aroused viewers. (4)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intensity and duration of electric shocks are different from one group to another. Because they are very inconsistent, we have some doubt on the duration measure as an aggression index while the overall findings contradict the catharsis hypothesis both classical(Dollard, J. et al.) and revised(Feshbah, S. et al), they suggest the social learning theory of aggression by Bandrua, A. can be supported.